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해설지 (인문계열)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1. 출제 의도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각 제시문의 출처와 내용 소개

[가] 이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3권 1장을 수정한 것이다. 정치체제를 탐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폴리스가 무엇인지 규정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복합체로서의 폴리스를 구성하는 시민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 탐구의 순서라고 제시한다. 시민은 태생, 같은 지역에서 거주함,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상업적인 계약에 참여함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정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시민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단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의 정의가 될 수 없고, 어린 아이나 의무에서 면제된 노인은 단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이라고 보기에 특정한 조건이 붙는 문제가 생기기에 시민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공직과 재판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이라면 마땅히 의사 결정을 하고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의는 민회와 재판에 시민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정체에서는 잘 적용되지만, 다른 정치 체제에서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임기가 종료되어 현재 공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거나 특정한 전문가에게만 재판을 맡기는 폴리스의 사람을 시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과 재판에 현재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의결과 재판에 참여할만한 소양과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가 부여된 모든 사람을 단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이라고 정의한다.

[나] 이 제시문은 『새국어생활』 28권 4호(2018 겨울)에 실린 한성우의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를 만나다」라는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국어 순화나 바른 말 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운동이 같은 전문적인 영역이라도 권력의 유무에 따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확하고 빠른 소통이

라는 언어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굳이 외래어의 사용을 틀렸다고 말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외래어의 유지나 외래어의 순화나 하는 문제에 대해 언어 사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하여 무조건적인 국어 순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다] 이 제시문은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1958년에 출판한 “능력주의의 출현(The Rise of the Meritocracy)”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글이다. 저자는 자신의 소설에서 진정한 능력 중심으로 유지되는 미래 사회를 묘사했다. 그가 그려낸 미래의 사람들은 오직 엄격한 시험 결과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다. 능력에 따라 엄격한 위계질서가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직 능력만을 성공의 요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저자는 미래사회의 모습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처음에는 매우 공평하고 공정한 시스템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무자비한 제도로 변질된다. 능력에 따라 엘리트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하게 사회를 통제한다. 반면 시스템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은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항거할 능력 또한 영구적으로 박탈당한다.

[라] 이 제시문은 신영복의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파주: 돌베개, 2004)의 “논어: 인간관계론의 보고”의 한 대목을 발췌하여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에서 고전 강독이란 강좌명으로 진행해왔던 한 교양강의의 강의록을 정리한 것으로 여러 동양고전을 현재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제시문에서 인용한 부분은 논어의 ‘君子不器’의 구절을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며 해설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이 구절은 원래 군자라면 하나의 특정한 기능에 갇히지 말고 여러 능력을 두루 함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하나의 능력을 전문화시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야하기에 이 구절이 동양 사회의 비합리성과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판단하기에 성공한 자본가는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한 분야의 능력만을 요구하는 자본의 논리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문항 설명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이 문제는 특정 제시문의 요약 능력, 다른 제시문들과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의할 것은, 일부의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1. [가]의 내용 요약

폴리스의 구성원인 시민이란 어떤 사람일까. 같은 지역에 살거나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는 등의 조건은

외국인이나 노예에게도 적용되고, 어린 아이나 의무에서 면제된 노인은 제한적으로만 시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적인 의미에서 시민은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폴리스마다 정체의 형태가 같지 않아 공직에 임기 제한이 있거나 공직자만 소송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결과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시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주된 견해나 관점이 제시문 [가]와 다른 제시문은 [다]와 [라]이다. [가]는 폴리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치 체제에 따라 시민의 정의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다양한 폴리스의 상황에 맞게 시민은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의결권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시민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폴리스의 운영에 필요한 시민들의 자질을 상정하고 그에 따라 시민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에서는 산업혁명의 도래 이후 능력 본위의 사회 분위기가 가속화되어 계층화가 심화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하층으로 전락한 이들에 대한 멸시와 부정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하고 있기에, 이 점에서 특정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하는 제시문 [가]의 논지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라]는, 군자는 특정한 기능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군자불기’의 관점을 내세우며 이 구절에 대한 막스 베버의 관점을 비판하고 나아가 성공한 자본가들 역시 전문화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와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1.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가]의 주된 논지는 시민의 특징을 공직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폴리스라는 통합체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격을 권리와 자질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다]는 능력주의라는 한정된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을 평가할 경우에 그 능력주의는 사회의 균열과 차별을 가져온다고 그 폐해를 비판하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와 반대되는 관점을 나타낸다.

2-2. 제시문 [라]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라]는 ‘군자불기’라는 구절의 뜻, 즉 군자라면 특정한 기능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새기며, 이를 통해 한 분야에만 전문성을 가지는 것을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여기는 근대 사회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시문 [라]의 관점은 여러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서도 의결권과 재판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만 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특정한 능력과 자질을 우선시하는 관점을 가진 제시문 [가]와는 배치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2】

위 그림에서 [그림 1]과 [그림 2]는 근로자 본인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과 [그림 4]는 근로자 본인과 어머니의 교육연수(敎育年數)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와 주어진 네 개의 그림을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 이 문제는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1. 개요

이 문제는 수험생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림과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여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밑줄 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시문의 내용과 그림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밑줄 친 내용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문제의 핵심이다.

2. 해설

이 문제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험생은 먼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오직 IQ의 증가라는 변화만 있을 때 월급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IQ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그림 1]에서 이미 IQ 점수와 월급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IQ 점수와 교육연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 1]에서 보여주는 IQ 점수와 월급의 관계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라는 조건을 위배한 상태에서 관측되는 관계이므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림 1]에서 보여주는 양의 상관관계가 IQ만의 영향이 아닌 교육연수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제시문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과 교육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엄마의 교육연수와 자녀의 월급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는 엄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그림 3]의 양의 상관관계는 다른 조건(제3의 매개변수)의 변화로 인해 발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는 엄마의 교육연수와 자녀의 IQ 점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엄마의 교육연수가 자녀의 교육연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림 3]에서 보이는 엄마의 교육연수와 자녀의 월급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자녀의 IQ 점수의 차이를 통해서만 나타났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엄마의 교육연수가 자녀의 IQ 점수를 통해서만 자녀의 월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엄마의 교육연수가 증가하면 자녀의 IQ 점수는 [그림 4]의 기울기만큼 변하게 될 것이고, 자녀의 월급은 [그림 3]의 기울기만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그림 3]의 기울기를 [그림 4]의 기울기로 나누어서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자녀의 IQ 점수가 1.75점 증가하고, 자녀의 월급이 3만원 증가하면, IQ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월급은 1.7만원 증가하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다.

3. 답안 예시

[그림 2]를 보면 IQ 점수와 교육연수가 함께 변하고 있으므로 [그림 1]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IQ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자녀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그림 3]에서 보여주는 두 변수 간의 관계는 다른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

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자녀의 교육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그림 3]과 [그림 4]를 함께 보면 엄마의 교육연수의 변화가 자녀의 IQ 점수의 차이를 통해서만 자녀의 월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그림 3]의 기울기를 [그림 4]의 기울기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문제 3】

<보기>는 어떤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이 문제는 주어진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오직 제시문의 논거만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 개요

<보기>의 글은, 제시문의 앞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맹상군이 선비를 얻는 데 능하여 진나라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하지만 그가 얻은 이들은 어진 선비가 아니라 그저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데 뛰어난 재주를 가진 무리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런 무리들을 수하에 두었기에 진정한 선비들이 그에게 모여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데 뛰어난 것 역시 특별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필자는 그러한 능력은 어진 선비가 해서는 안 될 재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의 흐름으로 볼 때, 결국 이 글은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글의 주제에 찬성하려면, 제시문들 가운데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와 [라]의 논거는 적극 지지하는 반면, 특정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와 [나]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거꾸로 <보기> 글의 주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가]와 [나]의 논거는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다]와 [라]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나아가 제시문의 논거들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내용을 단순 나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문제의 요구사항, 즉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저자의 뜻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맞춰 설득력을 갖도록 논리적으로 잘 조직해야 한다.

2. 제시문의 논거 활용

1)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입장

[가] <보기>의 저자는 훌륭한 사람이란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양한 품성을 잘 갖춘 어진 선비라고 본다. 따라서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제시문 [가]의 의결과 재판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을 한정짓고 있다. 하지만 의결과 재판 이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민은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 또한 갖고 있어서, 이를 수행함으로 자신이 속한 폴리스가 모든 시민들의 자족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물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도 시민을 정의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결과 재판이라는 한정된 능력과 자질로만은 시민을 제대로 규정할 수 없으며, 이런 특정한 능력과 자질만으로 시민을 규정한다면, 오히려 시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시민이 아니라고 간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논지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정 능력과 자질 이외의 것들도 고려하여 폭넓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는 경우 제시문 [가]의 논지를 비판하면서 의결과 재판이라는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 뿐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시민을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나]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보기>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을 우선시하여 그 기준이 충족되고 있다면 외래어의 순화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나]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전문 영역 안에서의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전문영역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용어들이 일반 사람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어떤 용어가 전문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조건을 우선시한다고 하더라도 국어 순화나 바른 말 쓰기는 그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어 순화, 바른 말 쓰기 운동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그 필요성을 따지기 어렵다. 의사소통의 쌍방이 단순히 개인 간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라면 단순히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정확성뿐만 아니라, 알 권리의 중요성, 인권 존중, 계층 간의 갈등 해소 등 국어 순화와 바른 말 쓰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능력있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역사적 고비를 극복하는데 항상 요구되어 왔다. 산업혁명은 세습적인 신분질서를 무너뜨렸고,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면 그 누구라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가 도달한 것이다. 능력주의가 아니라면 부의 세습, 특권의 되물림, 외모, 교육의 불평등, 요행 등과 같은 비능력적 요인이 이러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능력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사회시스템이 청렴하고 공정하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최소화되며, 약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포용적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위의 <보기> 글에 찬성하기 위하여 제시문 [다]를 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을 위한 능력의 공정한 평가와 함께, 오직 능력이라는 유일한 기준이 지배되지 않도록 능력 이외에도 다양한 자질이 존중받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차별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라] 제시문 [라]는 군자라면 한 가지 특정한 기능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군자불기’의 의미를 옹호하고 있다. 이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전문성을 강조하여 효율과 경쟁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한 자본가들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역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의 기능에 갇히지 않고 여러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는 제시문 [라]의 입장은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보기> 글의 주제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에 하나의 전문적인 기능에만 머무르다가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꾸준히 한 분야에 집중하는 장인정신이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현대 사회의 첨단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도 지체 없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더 빠른 변화와 기술 발전이 예측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한우물파기’보다는 보다 여러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입장

[가] 제시문 [가]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들에서 서로 다르게 시민을 규정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골라내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정치체제에 적용 가능한 본질적인 정의를 내려야 시민, 그리고 그 시민으로 이루어진 폴리스와 이들을 운영하는 다양한 정치체제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의결과 재판에 참여하는 권리라는 특정한 능력과 소양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여겨 시민을 규정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폴리스 뿐 아니라 근대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정의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훌륭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식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각 사람이 지닌 고유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하여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안의 다양한 지위와 자리가 필요로 하는 각각의 고유한 조건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고 구분해서 배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훌륭한 통치자라면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과 지위 각각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기>의 저자는 개 짖는 소리나 닭 울음소리라는 특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는 두루 어진 성품을 가진 인재가 국가에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람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역할과 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 구성원들을 개인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국가 전체의 필요에 따라서 인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보기>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제시문 [가]의 논거를 사용하여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과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나] 제시문 [나]는 해당 집단 내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확하고 신속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 집단 내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굳이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는 <보기>의 주장에 대해 선비가 맹상군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보기>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국어 순화의 결과는 순우리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는 국어 순화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이라는 기준과 더불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의 유입을 막으며 ‘순수’한 우리말의 보전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혹은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기준의 혼용 또는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다른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슈퍼에서 사용하는 ‘카트(cart)’를 ‘장보기밀차’로, ‘티백(tea bag)’으로 우려낸 차’를 ‘봉지차’로 순화하자고 했을 때,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언중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을 품게 된다. 아마도 순화어의 제정과 상관없이 ‘카트’, ‘티백’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될 것이다. 본래부터 언어는 순수한 존재도 아니거니와,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인 효과적인 소통을 우선시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우선시할 경우 국어 순화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선비도 필요한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만 다른 외부적인 기준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커지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보기>의 견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다] 제시문 [다]는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사회구성원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듯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

회를 균열시키고 차별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들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보상을 평등하게 실시한다면 우리사회의 다양한 능력을 더 유용하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글에 반대하여 특정 능력이나 자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일상적 활동이 제한된 요즘 들어 택배서비스, 돌봄 서비스, 플랫폼 노동 등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서비스가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와 생활고로 연이어 사망하고 있으며, 감염취약 시설들인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간호사나 보호사들은 전염병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한 면에서 제시문에 반대하는 논거로서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직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의 능력과 노력이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라] 제시문 [라]는 한 가지 특정한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것 같은 하나의 재주나 부분적인 기예를 가진 이들은 어진 선비가 아니라고 보는 <보기> 글의 요지, 즉 특정 능력이나 자질 외의 것도 훌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라]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막스 베버의 논리처럼 제대로 된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 각 분야에서 철저한 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또한 그 아래에서는 성공한 자본가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각적 경영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어발식 경영은 어떤 한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몰락하는 경우도 많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한 분야에서의 확실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4. 문제별 평가 기준 및 점수 부여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유의 사항>

- 100점 중 요약에 30점,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에 10점, 차이점 밝히기에 60점을 배정한다.

1) 제시문 [가] 요약: 30점

- 30점 - 2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요약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약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2)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 10점

- 10점: [나]와 [다]를 모두 찾은 경우.
- 5점: 하나만 찾은 경우.
- 0점: 둘 다 못 찾은 경우.

3)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 요약 및 차이점 밝히기: 60점

- 60점 - 51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 50점 - 41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 40점 - 31점: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혹은 [나]와 [다]의 논거를 제시하였지만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30점 - 21점: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또는 [나]와 [다]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나]와 [다]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나]와 [다]의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전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 2】

위 그림에서 [그림 1]과 [그림 2]는 근로자 본인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과 [그림 4]는 근로자 본인과 어머니의 교육연수(敎育年數)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와 주어진 네 개의 그림을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유의 사항>

- 정답을 추론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채점할 것.

1)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음: 50점

- 50점 - 41점: 인과관계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변화에 미치는 영향임을 이해하고 문제의 그림들을 올바르게 해석한 경우.
- 40점 - 31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나 문제의 그림들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경우.
- 30점 - 0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의 그림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

2) 제시문의 연구결과와 [그림 3]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음: 40점

- 40점 - 31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림 3]에서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자녀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한 경우.
- 30점 - 0점: 제시문의 연구결과와 [그림 3]에 논리적 모순이 없음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3) [그림 3]과 [그림 4]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IQ가 월급에 미친 인과적 영향을 추론한 경우: 10점

【문제 3】

<보기>는 어떤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유의 사항>

- 전체 100점 중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지지하면서 활용한 데 3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활용한 데에 50점, 그리고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에 20점을 배정한다.

1)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30점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다소 부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지 못하였거나, 제시문과 무관한 논거를 활용하여 정당화하였을 경우.

2)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50점

- 50점 - 4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40점 - 3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다소 부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은 채 비판하였거나, 또는 둘 중 한 제시문의 논거만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적 그럴 듯하게 비판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부적절한 근거로 비판하였을 경우.

3)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 20점

- 20점 - 11점: 표현이 정확하면서 글의 구성이 논리적일 경우
- 10점 - 0점: 표현이 부정확하고 글의 구성이 비논리적일 경우